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초대 원장 이임식 행사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이임식

“3년간 31개 기관과 업무협약, 28개 섬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등 아름다운 섬과 섬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섬진흥원이 더욱더 성장해 세계 최고의 섬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2일 “지난 30일 오동호 초대 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목표의 한국섬진흥원서 진행된 이임식 행사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오 원장은 행정학 석·박사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시절, 자전거정책과를 만들고 ‘대한민국 자전거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목을 받았다. 2022년에는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하고, 2023년에는 ‘K-섬 연구·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사업 자문위원회 발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박재홍)는 지난 28일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광주·전남에서 나눔과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 있는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임기 3년 동안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

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재홍 회장은 구제길 세종중앙병원 이사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RCHC)’ 가입식도 진행됐으며 김재성(주인성이엔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조선이공대·광주경제진흥원 일자리재단 청년 고용창출·역량 강화 지원 협약



조선이공대학교와 (재)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29일 지역 청년 및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는 ‘광주광역시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역량 강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청년 진로·취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소상공인 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사업 및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영기 기자 penfoot@

‘전남고 화합의 장’ 총동문골프대회 성료



전남고 총동문골프대회가 최근 무안C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3회 최향주, 4회 김이수(조선대 이사장) 동문을 비롯해 18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회에서는 임현경

(19회 메달리스트), 박환영(16회 신페리오 우승) 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윤치선 총동문회장은 “이번 대회가 동문들이 모여 화합하는 자리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청소년범죄예방 광주협의회, 마약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 위원 광주지역협의회와 광주지방검찰청,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마약없는 밝은 사회, 함께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마약 근절 캠페

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마약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진>

/정병호 기자 jusbh@

인사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중환 ▲조사3국장 강중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정세승무국장 김승민 ▲조사1국장 윤창복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과화조사담당관 남우창 ▲남부세무서장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강상식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조사1국장 박근욱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황동수 ▲원천세과장 정민희 ▲성동세무서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민선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위찬필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30일 己巳)
36년생 기준의 행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48년생 개별적인 취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함유가 유용하다. 60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72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96년생 파격적인 진보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1, 72
37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49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1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야겠다. 73년생 밤심하다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85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97년생 급속 지갑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52
38년생 차분하게 공리해보면 꼭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50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잘 것 없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다. 62년생 실행하기 전에는 겁이 나겠지만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님을 알리라. 74년생 역할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86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98년생 소강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39, 92
39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부르게 될 것이다. 51년생 가능한 모든 일을 실행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63년생 주저한다면 실패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뻔하다. 75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7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만 한다. 99년생 일 관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4, 65
40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52년생 행국의 제변에 걸려 있는 기본적인 원년부터 인식하라. 64년생 지지 기반이 성벽 같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76년생 생지리멸렬함을 청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일 것이다. 88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00년생 탄실하게 보였던 것이 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61
41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53년생 옛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65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 나가지 않을까 두렵다. 77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성사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89년생 객관적인 자제만이 활로를 열어 주게 된다. 01년생 맹목적이러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4, 51